

조부모와의 동거가 유자녀 맞벌이 여성의 시간활용 및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 자녀돌봄, 수면, 가정관리 시간을 중심으로

양은모¹⁾ . 성경²⁾. 배호중³⁾

요약

본 연구는 「생활시간조사(2019년)」 자료를 이용해 맞벌이 여성(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수면시간, 가정관리 시간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이 느끼고 있는 시간부족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2세대 가구(부모-미성년 자녀)와 3세대 가구(조부모-부모-미성년 자녀)의 맞벌이 여성으로 한정한다.

분석결과, (1)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3세대 거주 여부)와 (2)함께 살고 있는 조부모의 돌봄시간에 따라 맞벌이 여성의 시간사용 양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3 세대 가구(조부모-부모-미성년 자녀)에 속해 있거나, 함께 살고 있는 조부모가 오랜 시간 미성년 자녀를 돌봐주는 맞벌이 여성은 (2세대 가구에 속해 있는 맞벌이 여성에 비해) 자녀돌봄과 가정 관리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맞벌이 여성의 경우 시간부족감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및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둘러싼 사회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주요용어 : 3세대 가구, 조부모와의 동거, 생활시간조사, 자녀돌봄 시간

1. 서론

우리는 ‘조부모-부모-미성년 자녀’로 이루어진 3세대 가구에 익숙하다. 물론 과거와 비교해 절대적인 수나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조부모가 돌보는 손자녀’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한다.

실제로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015년 기준 3세대 가구는 1,029천 가구로 전체가구(=19,111천 가구)의 5.4%가량을 차지하였으나, 매년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2022년에는 전체가구(=21,774천 가구)의 3.0% 수준(=662천 가구)으로 그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가능성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30~40대

1) 주저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0,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 연구위원. E-mail: emyang@gire.kr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센터, 연구원. E-mail: skyung @kwdimail.re.kr

3) 교신저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 부연구위원. E-mail: baseball@kwdimail.re.kr

가구주 가구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3세대 가구는 2015년 438천 가구에서 2022년 239천 가구로 해당 연령대 가구의 5.6%(=438천 가구/7,831천 가구)에서 3.3%(=239천 가구/7,340천 가구)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23).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조부모의 돌봄 지원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3세대가 함께 또는 근접한 거리에 사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실제로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등·하교 시간에 손자녀를 기다리는 조부모들이 쉽게 목도되는 것은 조부모의 돌봄 지원 가능성을 살필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을 둘러싼 여타의 의사결정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유형 또한 가족 간 충분한 고민을 거쳐 가족 구성원의 (기대)효용이 극대화되는 형태로 ‘선택’된다. 적절한 정도의 주거마련 가능성이나 생활비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측면이나 건강상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다. 그 가운데 가사노동 등 생활의 공유 등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시간자원의 효율적 활용가능성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맞벌이 부부는 중요한 돌봄자원의 하나로 조부모의 돌봄지원을 염두에 두고 가족유형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맞벌이가 보편화되었지만 공적 돌봄 체계가 여전히 부족한 한국에서 조부모는 자녀돌봄의 든든한 돌봄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부모 외의 바람직한 주양육자로 조부모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이들이 비공식적 돌봄의 대표적인 유형인 조부모의 돌봄지원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진 외, 2015; 김은설 외, 2016).

한국의 경우 경력단절이 그 어떤 국가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혼인이나 출산 이후 노동시장에서 경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일과 가정 사이에서 ‘이중부담’을 겪는 이들 또한 상당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맞벌이 여성은 그 어떤 집단보다 시간부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상당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여성, 그중에서도 맞벌이 여성의 시간활용이나 무급노동 시간 등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허수연·김한성, 2019; 김영서, 2020). 반면, 배우자 이외의 가구구성원이나 가구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간사용 양상을 실증적으로 살핀 연구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의 시간사용 양상이나 그들이 체감하고 있는 시간부족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가구유형에 주목하여 가족 간 협업이나 가족자원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조부모-부모-미성년 자녀’로 이루어진 3세대 가구와 ‘부모-미성년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 간의 비교를 통해 돌봄을 둘러싼 가족 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돌봄을 둘러싼 정책개발에 시간자원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충분한 고민이 이루어지는데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1 이론적 배경: 가계 생산가능곡선을 통한 3세대 가구의 잇점 분석⁴⁾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성적인 경제주체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의 편익이 비용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행동을 시행한다. 이러한 기본가정을 근거로 이전까지는 지극히 사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으로 판단해오던 가족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게리 베커(Gary Becker)를 필두로 보다 체계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보편적인 설명방식을 찾아내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져 오고 있다(배호중·김정욱, 2020).

혼인 이후 분가를 할 것인지, 부모세대와 함께 살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또한 다양한 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비교우위에 의한 특화’나 ‘시간이나 재화의 공유를 통한 효율성 제고’, ‘규모의 경제로 인한 편의 증가의 가능성’ 등은 3세대 가구 등 가구유형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시장재와 비시장재(가정재) 공급량에 대해 살펴보는 가계 생산가능곡선(Blau, Ferber & Winkler, 2002; 김상대·장유미, 2009: 72-76)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즉,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생산성이나 비시장재(가정재)의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만약 어떤 가구가 그들의 부모세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편익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며, 시간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시간활용의 재량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거나, 생활유지를 위한 필수활동에 상대적으로 적은 정도의 시간을 들여도 되는 상황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교환이론’은 미래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손자녀 돌봄과 노후 부양을 둘러싼 부모세대와 성인자녀세대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사회교환이론에서는 호혜성의 규범과 공정 교환의 규범에 바탕을 두고 자원이 교환된다고 설명한다. 즉, 현재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에게 그들이 행하고 있는 돌봄은 자신의 노후를 위한 일종의 보험적 성격의 도구로 이해되기도 한다는 해석이다(하석철·홍경준, 2014).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시간은 소득이나 경제적 활동 등과도 직결되어 그 자체로 중요한 자원이고, 현대사회에서는 가족형태에 따라 시간활용 양상에도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도 짐작해 볼 수 있다.

2.2 선행연구 검토

2.2.1 세대 간 돌봄(inter-generational care) 관련 연구

가족 구성원 중 특히 조부모에 의해 제공되는 비공식 돌봄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돌봄의 형태였고,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었다. 예를 들면, Johansen et al.(1996)은 조부모가 손자녀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4) 이에 대해서는 김상대·장유미(2009) pp.72~84에 ‘가계 생산가능곡선을 통한 결혼의 잇점 분석’이라는 제목의 장으로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해당 장에는 두 개인의 비시장재와 가정재 생산에서의 비교우위를 통한 생산가능곡선의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를 세대(부부세대와 조부모 세대) 간 비시장재와 가정재 생산에서의 비교우위로 개념을 차용한다면 3세대 가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의 행동과 감정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호응해줄 수 있으며, 타인에 비해 더욱 세심한 돌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부모에 의한 돌봄이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Fuqua & Labensohn(1986), Gordon & Shirer(2006)는 경제적 측면에서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돌봄은 저비용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줄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Morrissey(2009)는 조부모에 의한 돌봄이 불규칙한 퇴근 시간을 가진 기혼자녀들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혼자녀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아동에게 비교적 안정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이하나·최영, 2015: 266에서 재인용)5).

이처럼 비공식 돌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대 간 돌봄이라 할 수 있는데 세대 간 돌봄의 필요성이나 장점만을 염두에 두고 3세대 거주를 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녀돌봄과 3세대 거주 간에 상당한 연관성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비공식 돌봄 가운데 세대 간 돌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이윤진 외, 2015; 김은설 외, 2016) 가장 원하는 형태의 돌봄으로 꼽히기도 하였다(이윤진·권미경·김승진, 2015). 이러한 세대 간 돌봄 유형은 남부 유럽이나 동아시아와 같이 가족이 분담하는 복지기능의 비중이 다른 복지 주체(국가 및 시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는데(김윤정·문순영, 2009; OECD, 2011) 한국의 경우 아직은 출산 후 노동시장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 정책이나 시설 등이 부족해 자녀 돌봄과 관련한 어려움은 가족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낮시간 주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는 5.0%로 기관(51.0%)이나 모(41.4%)를 이 외의 대부분을 조부모 돌봄이 차지하였으며, 자녀돌봄, 경제적지원, 가사지원 등에 있어 부모 이외에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한 결과에서도 아이의 외조부모(32.8%) 또는 친조부모(16.0%)를 꼽은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김은설 외, 2021). 이에 비추어보면 우리사회에서 적지 않은 수의 가구가 세대 간 돌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세대 간 돌봄이 이루어지는 가구가 많은 만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실증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그 주제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는데 몇 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부모의 돌봄이 유자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비교적 일관되게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은 어머니의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성지미·차은영, 2001; Sasaki, 2002; Compton & Pollak, 2014; Ko & Hank, 2014; Compton, 2015; Garcia-Moran & Kuehn, 2017; Kanji, 2018; Yu, Cao & Kang, 2023). 이들 연구에서는 3세대가 함께 살거나 손자녀 돌봄 등을 지원받는 가구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이 높거나,

5) 물론 이와 함께 여러 단점들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조부모에 의한 비공식적 돌봄은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성과 비전문성, 조부모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주로 언급된다. 또한 대부분 조부가 아닌 조모에 의해 돌봄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세대가 다른 여성간의 돌봄 분담일 뿐, 성별 분업적 역할 분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김윤정·문순영, 2009; 이하나·최영, 2015; 최은희·이윤석, 2021). 특히 한국의 경우 자녀 돌봄이 다시 가족 내로 회귀되는 경우가 여전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도 사실이다(김영란 외, 2021).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의 낮음을 보이고 있다.

둘째, 조부모의 돌봄이 추가출산 또는 추가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주로 조부모의 돌봄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 출산의도 또는 실제 출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이하나·최영, 2015; 배호중·한창근·양은모, 2017). 이를 연구에서는 주로 조부모와의 거리(이하나·최영, 2015; 배호중·한창근·양은모, 2017)가 가깝거나 함께 살고 있는 경우(전현배·이인재, 2009; 김현식·김지연, 2012), 관계가 원만하거나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산(의향)에 긍정적인 영향(Sear & Dickins, 2010; Tanskanen & Rotkirch, 2014; 이하나·최영, 2015)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보다 단순하게는 조부모의 생존여부 자체도 출산(의향)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김정석, 2007; 정혜은·진미정, 2008; 정은희·최유석, 2013)도 존재한다.

셋째, 돌봄으로 인한 조부모의 신체, 정신적 건강 문제나 양육스트레스, 만족감 등에 관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부모에게 손자녀 돌봄지원은 긍정적 경험과 함께 부정적 경험의 양가적인 상황을 제공한다. 즉 양육을 지원하는 조부모는 보람, 기쁨, 활력, 뿌듯함 등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지만 신체적 부담 및 피로, 자유시간 부족, 외출의 제약, 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이재림, 2013; 최은희·이윤석, 2021)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2.2.2 (유자녀) 취업 여성의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양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 사용의 결정이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사회 활동 및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의 역할에 따라 비자발적인 시간이 투입되기도 하고, 이로 인한 시간부족감이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사회활동에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는만큼 가족 안에서의 역할이나 가족공동의 시간, 가족 구조 등에 따라서도 개인의 시간사용 양상에 차이가 생겨날 수 있다. 특히 가족 내에서 돌봄을 요하는 이들(예컨대 미성년 자녀)이 있으면 그를 위한 돌봄에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이는 시간사용 양상이나 시간부족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특히 자녀돌봄이나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 상황에 놓인다(손문금, 2003; 김진숙, 2008; 주은선·김사현·김민성, 2014).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통해 15~54세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15~54세 기혼여성 810.3만명 중 취업자는 50.8만명(62.6%)인 것으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22). 이를 자녀 연령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49.0%인 것에 비해, 7~12세 자녀가 있는 경우와 13~17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이 각각 60.9%와 66.9%⁶⁾인 것과 비교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 이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여성의 고용률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 자녀연령별로 여성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는데 ‘6세 이하(33.4시간)<7~12세(36.2시간)<13~17세(37.4시간)’ 순이었다(통계청, 2022).

이에 비추어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들은 시간사용을 비롯한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특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여성의 생활 시간에 관한 실증연구들은 맞벌이가정 혹은 기혼취업자를 대상으로 시간부족 실태를 살펴본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된 바 있다(허수연, 2008; 차승은, 2010; 서지원, 2015; 허수연·김한성, 2019).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시간빈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김진욱·고은주, 2015; 서지원, 2015; 김외숙, 2015; 오혜은, 2017; 김미영·박미려, 2017; 노혜진, 2019)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시간이 가정생활의 행복과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됨으로써 가정생활에서의 시간 구성이나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김미영·박미려, 2017:47).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자 한 기혼 여성근로자의 생활 시간을 살핀 연구들 또한 다수 수행된 바 있는데 이를 연구들에서는 주로 본인 및 가족(자녀 및 배우자) 특성을 고려하여 여가나 가사노동, 돌봄과 같은 행동들에 할애한 시간을 분석하거나 휴식/자유시간의 부족이나 시간부족감을 분석한 경우가 많다.

몇 가지 연구들에서 나온 결과들을 살펴보면 본인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의 인적자본 특성과 일자리 특성을 다양한 측면으로 고려한 경우가 많다. 종사상 지위 등 취업형태나(주익현, 2017; 정형안·이윤석, 2020; 조보배, 2022), 소득수준(조보배, 2022) 등과 함께 일터에서의 일-가정 양립관련 제도 활용가능성(조주은, 2008)이 이를 설명하기 위한 요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기혼여성의 시간사용에 있어 자녀유무, 특히 취학 전 자녀의 유무에 따라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활용 양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이미 알려져 있다(김외숙, 2015; 박건, 2016). 특히 어린자녀가 있을 경우 여성의 가사시간 증가로 인해 시간압박 정도나 시간부족감이 높고, 여가시간이 부족함이 나타났다(김진욱·고은주, 2015; 서지원, 2015; 이경희·김근주, 2018).

이와 함께 배우자의 특성도 기혼여성의 생활시간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배우자의 소득, 직업, 연령 등 다양한 특성이 고려된다(김영란 외, 2015; 이경희·김근주, 2018). 특히, 소득과 관련해서는 절대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배우자 간의 상대적인 소득 수준도 가사노동분담 등 기혼여성의 생활시간활용 양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김진욱·고은주, 2014; Evertsson & Nermo, 2007; Fetterolf & Rudman, 2014). 이밖에 지역이나 요일 등에 따라서도 시간 사용 양상이나 시간부족감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연구들도 존재한다(박은정, 2019; 주익현·주이화, 2021).

비록 여성의 시간활용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자녀 유무, 혼인 여부, 성별’이 시간빈곤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임을 제시한 연구 결과들(노혜진, 2019; 박세정, 2020)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시간빈곤 가능성은 그 어떤 집단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취업 여성의 생활시간활용 양상이나 시간부족감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2019년 「생활시간조사」

본 연구는 3세대 거주가 그들의 시간 배분 및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9년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 자료를 이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24시간 동안의 시간활용 현황 및 의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양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주기로 총 5차례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는 만 10세 이상의 가구원(응답자)을 대상으로 연속 이틀(48시간)의 시간 동안 10분 간격으로 직접 기입하도록 하며, 2019년 「생활시간조사」는 12,435 표본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2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통계청, 2019).

본 연구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을 대상으로 ‘돌봄시간’, ‘수면시간’, ‘가정관리시간’에 대해 분석하였다⁷⁾. 본 연구의 차별성은 해당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시간부족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번호’를 이용해 ‘가구주’를 중심으로 ‘부모(배우자쪽 포함)’, ‘미성년 자녀’ 또는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손자녀’ 등의 변수를 통해 맞벌이 가구 중 3세대가 함께 사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구분하였다.

여성(아내)의 시간활용은 배우자 등 가족들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출한 자료는 ‘가구주와의 관계’와 ‘성별’ 변수를 이용해 부부(=남편과 아내)의 시간일지를 횡으로 결합하였다. 시간일지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평일(월~금)뿐만 아니라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도 돌봄이나 가사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모든 요일에 조사된 시간일지를 사용하였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주로 출근이 이루어지는 평일과 주말의 시간활용 구조가 다를 것으로 판단해 평일(월~금)과 토요일, 일요일을 구분하는 변수를 설정하였다.

결국 「생활시간조사」 시간일지 중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시간이 10분 이상이며, 미취학~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여성’의 시간일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1,397명의 시간일지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였다. 「생활시간조사」가 계절요인과 요일별 시간활용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총 3회(7월, 9월, 11월)에 걸쳐 조사가 실시되는 만큼 이들 가운데는 두 번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진 이들도 존재한다. 다른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진 응답의 경우 독립된 자료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는 2,796개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의 시간일지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7) 이에 대해 살펴보면 자녀돌봄시간은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 중 ‘5.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중 ‘52.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와 ‘53. 만 10세 이상 미성년자 돌보기’에 해당하는 활동들에 투입한 시간의 합으로 설정하였고, 수면시간은 ‘수면(111)’과 ‘잠 못 이룸(112)’의 시간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가정관리시간은 ‘4. 가정관리’에 해당하는 활동에 할애한 시간의 합을 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시간부족감은 “귀하는 평소 시간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의 문항에 대해 4점척도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①항상 여유~④항상 부족)하여 해당값이 높을수록 시간부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3.2 변수구성

3.2.1 종속변수: 자녀돌봄시간, 수면시간, 가정관리시간 및 시간부족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의 시간활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녀돌봄시간, 수면시간, 가정관리시간에 초점을 두었다. 이 세가지 활동은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근로자가 특징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어 이중부담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당하며, 이는 자녀돌봄 또는 가정관리(가사노동)를 위한 시간의 부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자녀돌봄시간과 가정관리시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자녀돌봄이 수면(부족)과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논의한 선행연구(주익현, 2017; 정형안·이윤석, 2020)도 존재하는 만큼 3세대 거주 또한 생활 전반이나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수면시간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3세대 거주는 시간 사용에 제약이 될 수도 있고, 적절한 역할분담 등으로 시간의 여유를 갖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자녀돌봄시간, 가정관리시간, 수면시간에 할애하는 시간에 대한 분석 외에 시간부족감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3.2.2 독립변수: 3세대 가구여부, 조부모의 돌봄시간

각각의 가구원들은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여 생활의 상당부분을 함께 하면서 가정 내에서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3세대가 함께 사는 가구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기도 하며, 그 밖에 여러 활동이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돌봄이나 가사에 대한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면 아동의 부모의 돌봄, 가사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으며, 반대로 적절한 역할 분담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3세대가 함께 사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내 여성의 시간활용이나 시간부족감을 살피는 것이므로 3세대 거주 여부를 독립변수의 하나로 삼아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초점으로 한 연구이자 돌봄시간을 중요한 분석 대상의 하나로 삼은 만큼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시간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후 또다른 연구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3세대 가구의 경우 조부 및 조모(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응답한 아이 또는 미성년 손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의 합을 돌봄시간으로 삼았고, 3세대 가구가 아닌 경우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시간을 0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3.2.3 통제변수

가구원의 시간활용 양상은 본인은 물론 다른 가구원이나 가구 등 다양한 측면의 요인들과 관련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

벌이 여성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크게 본인특성, 배우자특성 그리고 가구특성으로 나누어 통제변인을 설정하였다.

본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연령과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였으며, 생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시간을 함께 통제하였다. 이와 함께 근로 또는 근로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성으로 소득수준과 종사상지위를 염두에 두고 이를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 각각을 나타내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생성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가구원과의 상호작용 또한 시간활용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누구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많은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배우자의 특성도 통제하였는데 배우자의 근로시간, 소득 및 교육수준을 고려하였다.

가구특성과 관련해서는 돌봄과 관련해 그 무엇보다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 미성년 자녀의 수를 우선 고려하였다⁸⁾. 이와 함께 가구의 소재지나 자가보유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각각을 구분짓는 더미변수를 설정해 분석에 활용하였고, 요일에 따라 각종 활동 또한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음을 염두에 두고 조사일을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는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4. 3세대 거주가 맞벌이 여성의 시간활용 및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

4.1 기술통계분석

맞벌이 여성 1,397명의 시간일지 2,796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맞벌이 여성들은 미성년 자녀 돌봄에 일평균 79.4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수면 시간은 평균 488.0분(≒8.1시간), 가정관리에는 157.9분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시간부족감에 대한 평균은 3.13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제변인은 본인특성과 배우자특성, 가구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중 본인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41.6세였고, 일 평균 근로 시간은 240.3분이었다⁹⁾.

8) 자녀의 수와 함께 자녀가 어릴 경우 돌봄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생활시간조사」의 경우 만 10세 미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령 등 특성을 조사하지 않아 단순히 만 10세 미만 자녀 유무에 대해서만 통제하였다.

9) 맞벌이(취업) 여성은 분석대상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근로시간이 4시간 수준에 그친 것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일요일도 분석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평일(월~금)의 시간일지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평균 근로시간은 본인은 평균 5.69시간(341.3분)이었고, 배우자는 7.47시간(448.2분) 수준이었다.

<표 4.1> 분석에 이용한 변수 설명 및 기술통계

변수 특성	변수명	변수설명	평균 or 빈도	표준편차 or %		
종속 변수	미성년자녀 돌봄시간	미성년자 돌보기(분)	79.403	91.991		
	수면시간	수면+잠 못 이룸(분)	487.954	96.165		
	가정관리시간	가정관리(분)	157.904	104.075		
	시간부족감(4점 척도)	①항상 여유~④항상 부족	3.128	0.795		
통제 변수	연령	연령(세)	41.582	6.895		
	근로시간(시간)	근로시간(시간)	4.004	3.147		
	소득 범주	0~100만원 미만	0~100만원 미만=1	654	23.4%	
		100~2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1	942	33.7%	
		200~3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1	680	24.3%	
		300~5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1	418	15.0%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1, 그 외=0	102	3.7%	
	본인 특성	고졸 미만	고졸 미만=1, 그 외=0	98	3.5%	
		고졸	고졸=1, 그 외=0	820	29.3%	
		전문대출	전문대출=1, 그 외=0	792	28.3%	
		대출	4년제 대출=1	924	33.1%	
		대학원졸	대학원졸(석사·박사)=1	162	5.8%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상용종사자=1, 그 외=0	1,638	58.6%	
		임시·일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1	608	21.8%	
		고용원有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1	124	4.4%	
		고용원無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1	264	9.4%	
		무급가족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1	162	5.8%	
		주관적 건강상태(5점 척도)	①매우 나쁨~⑤매우 좋음	3.369	0.741	
	배우자 특성	근로시간(시간)	근로시간(시간)	5.612	3.770	
		소득 범주	0~200만원 미만	0~200만원 미만=1	248	8.9%
			200~3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1	724	25.9%
			300~4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1	790	28.3%
			400~6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1	756	27.0%
			6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1	278	9.9%
		교육 수준	고졸 미만	고졸 미만=1, 그 외=0	66	2.4%
			고졸	고졸=1, 그 외=0	808	28.9%
			전문대출	전문대출=1, 그 외=0	716	25.6%
			대출	4년제 대출=1, 그 외=0	982	35.1%
			대학원졸	대학원졸=1, 그 외=0	224	8.0%
	가구 특성	미성년 자녀수	가구 내 미성년 자녀 수	1,663	0.654	
		만 10세 미만 자녀 유무	있음=1, 없음=0	1,536	54.9%	
		자가보유 여부	자가=1, 그 외=0	1,958	70.0%	
		지역	서울	서울=1, 그 외=0	280	10.0%
			광역시	광역시=1, 그 외=0	886	31.7%
			기타	서울, 광역시 제외=1	1,630	58.3%
		조사일	평일	월~금=1, 그 외=0	1,698	60.7%
			토요일	토요일=1, 그 외=0	547	19.6%
			일요일	일요일=1, 그 외=0	551	19.7%
독립 변수	세대 특성	3세대 가구 여부	3세대 동거=1, 그 외=0	200	7.2%	
		조부모의 돌봄시간	조부모의 돌봄시간(분)	2,386	19.182	
N			시간일자 2,796개			

이들이 응답한 소득수준을 살펴보면¹⁰⁾ 100~2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한다는 이들이 1/3정도(33.7%)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미만(24.3%)이 뒤를 이었다. 23.4%는 본인의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 응답하였고, 500만원이 넘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7%였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졸(33.1%), 고졸(29.3%), 전문대졸(28.3%)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고졸 미만과 대학원졸은 각각 3.5%와 5.8%였다.

종사상지위는 상용근로자자 58.6%로 절반을 넘었고, 임시·일용근로자가 21.8%였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각각 4.4%와 9.4%를 차지하였고, 5.8%는 무급가족종사자였다. 5점척도의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은 3.4점이었다.

이어 배우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근로시간은 336.7분으로 본인(아내)에 비해 길었으며, 소득은 300~400만원 미만 범주를 꼽은 비중이 28.3%로 가장 높았고, 400~60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이 각각 27.0%와 25.9%를 차지하였다. 9.9%는 600만원이 넘었으며, 200만원 미만인 비율은 8.9%였다. 배우자의 교육수준도 대졸(35.1%)이 가장 많았고, 고졸(28.9%), 전문대졸(25.6%) 또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미성년 자녀의 수는 평균 1.66명이었고, 만 10세 미만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9%였다. 가구 소재지를 살펴보면 서울이 10.4%였으며, 광역시에 거주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1.7%였다. 미취학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17.7%였고, 10가구 중 7가구(70.7%)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었다. 분석대상 시간일지의 60.7%는 평일(월~금)의 시간일지였고, 토요일과 일요일 시간일지는 각각 19.6%와 19.7%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삼은 세대구성과 관련해서는 7.2%는 ‘조부모-부모-미성년 자녀’로 이루어진 3세대 가구였고, 92.8%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였다. 2세대 가구는 조부모의 돌봄시간이 0분이라 가정했을 때 조부모의 평균 돌봄시간은 2.4분이었다¹¹⁾.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한 종속변인에 대해 세대구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표 4.2>와 같이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을 살펴보면 2세대 가구의 경우 평균 80.6분, 3세대 가구는 63.9분으로 3세대 가구가 16.7분 더 짧았고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였다. 수면시간은 각각 488.4분과 482.1분으로 3세대 가구가 6.3분 짧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정관리시간은 2세대 가구와 3세대 가구가 각각 159.5분과 136.8분으로 3세대 가구의 여성이 20분 정도 더 짧았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의 응답한 시간부족감은 각각 3.13점과 3.05점으로 3세대 가구 내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의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3세대 가구가 2세대 가구에 비해, 맞벌이 여성의 시간 활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0) 「생활시간조사(2019년)」는 소득과 관련해 9가지 범주(①100만원 미만, ②100만원~200만원 미만……⑧700만원~800만원 미만, ⑨800만원 이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개인별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본인(아내)와 배우자(남편)의 응답범주를 동일하게 묶을 수 있으나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범주에 집중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져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보다 간략하게 묶는 과정에서 응답의 분포를 감안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범주를 약간 달리 묶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11) 이는 분석대상 모든 시간일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값이다. 3세대 가구의 시간일지(200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조부모의 평균 돌봄시간은 45.1분이었다.

<표 4.2> 가구유형(세대특성)별 맞벌이 여성의 시간활용 및 시간부족감 차이
(단위: 분, 점)

	2세대 가구[=A]	3세대 가구[=B]	차이 [=A-B]	검정통계량 (t-value)
자녀 돌봄시간	80.6 (92.8)	63.9 (79.9)	16.7분	2.48*
수면시간	488.4 (96.0)	482.1 (98.3)	6.3분	0.37
가정관리시간	159.5 (103.4)	136.8 (110.3)	22.7분	2.83**
시간부족감	3.134 (0.794)	3.045 (0.804)	0.089점	1.51
N	2,596	200		

주1: ()는 표준편차

주2: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4.2 다중회귀분석으로 살핀 3세대 거주가 맞벌이 여성의 시간활용에 미치는 영향

4.2.1 미성년 자녀 돌봄시간에 대한 분석

앞선 <표 4.2>에서 세대구성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의 시간활용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다만, <표 4.2>는 다른 조건들은 통제하지 않고 단지 세대구성의 차이(2세대 vs. 3세대)에 따라 돌봄이나 수면 등의 시간사용이나 시간부족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살펴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선행연구 등에서 주 양육자인 여성의 시간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의 미성년 자녀 돌봄시간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의 ‘미성년 자녀 돌봄시간’을 종속변수로 삼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독립변인으로 삼은 세대특성에 따라 통제변인들은 동일하게 하고 독립변인을 달리한 두 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I]에서는 3세대 거주 여부(2세대=0, 3세대=1)를 독립변수로 삼았으며, [모형 II]에서는 조부모의 돌봄시간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형 I]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연령이 많을수록, 근로시간이 길수록 자녀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었으며, 소득범주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1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경우 돌봄시간이 길었다. 학력별로는 (기준변수로 삼은 대졸인 이들에 비해) 낮은 정도의 교육수준에 속하는 이들의 경우 돌봄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배우자특성과 관련해서는 배우자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본인(아내)의 돌봄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범주에 따른 경향성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배우자의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고졸 미만, 고졸 등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교육수준에 속할 경우 본인(아내)의 자녀돌봄 시간이 짧을 가능성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4.3> ‘미성년 자녀 돌봄시간(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특성	변수명	[모형 I: 3세대 거주 여부]		[모형 II: 조부모의 미성년 자녀 돌봄시간]	
		추정치(β)	S.E.	추정치(β)	S.E.
본인 특성	연령	-2.612***	0.264	-2.635***	0.264
	근로시간(시간)	-9.657***	0.264	-9.625***	0.539
	소득범주 (ref.=200~300만원)	0~100만원	15.529**	4.881	15.528**
		100~200만원	3.719	3.649	3.693
		300~500만원	3.118	4.561	2.620
		500만원 이상	9.488	7.767	9.986
	교육수준 (ref.=대졸)	고졸 미만	-23.802*	9.629	-24.075*
		고졸	-13.976***	4.155	-14.526***
		전문대졸	-13.865***	3.665	-14.051***
		대학원졸	4.186	6.153	3.945
	종사상 지위 (ref.=상용종사자)	임시·일용근로	3.327	3.968	3.447
		고용원有 자영업	11.815†	6.651	11.478†
		고용원無 자영업	3.883	4.776	3.476
		무급가족종사자	7.001	7.087	6.781
	주관적 건강상태	0.319	1.786	0.162	1.788
통제 변수	근로시간(시간)	3.888***	0.467	3.945***	0.466
	소득 범주 (ref.=300~400만원)	0~200만원	1.781	5.335	1.908
		200~300만원	1.807	3.641	1.258
		400~600만원	-5.229	3.603	-5.271
		600만원 이상	1.409	5.142	1.270
	교육수준 (ref.=대졸)	고졸 미만	-8.069	11.531	-7.720
		고졸	-10.160*	4.035	-10.370**
		전문대졸	-4.147	3.703	-4.458
		대학원졸	1.162	5.386	1.049
	미성년 자녀수	6.791**	2.128	6.635**	2.129
	만 10세 미만 자녀 유무	67.633***	3.398	67.895***	3.404
	자가보유 여부	-8.261**	2.994	-8.552**	2.994
	지역 (ref.=기타지역)	서울	14.970**	4.663	14.544**
		광역시	2.733	2.925	2.616
	조사일 (ref.=일요일)	평일	38.282***	4.753	38.082***
		토요일	8.903*	4.280	8.947*
독립 변수	세대 특성	3세대 가구 여부(3세대 가구=1)	-15.114**	5.178	
		조부모의 돌봄시간(분)		-0.106*	0.053
상수항		140.493***	14.493	141.941***	14.500
<i>F-value</i>		67.50***		67.25***	
<i>R</i> ²		0.439		0.438	
<i>Adj. R</i> ²		0.432		0.431	
N		2,796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미성년 자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자녀가 많을수록 돌봄시간이 길었는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녀 한 명당 평균 6.8분가량 돌봄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반영하듯 만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돌봄시간이 일평균 68분가량 더 길었고,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자녀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이와 함께 서울에 살고 있을 경우 돌봄시간이 길었다. 또한 다른 조건이 같다면 (기준변수로 삼은 일요일에 비해) 토요일은 약 9분, 평일은 38분 정도 자녀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자 독립변수로 삼은 3세대 가구 여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결과를 나타내어 3세대 가구의 맞벌이 여성은 2세대 가구 맞벌이 여성에 비해 자녀 돌봄시간이 짧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세대 가구 맞벌이 여성에 비해 일평균 15분 정도 짧았다.

이어 통제변수들은 동일하게 설정하고 3세대 가구 여부 대신 조부모의 돌봄시간(분)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모형 II]의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들에 대한 계수값의 방향이나 유의도 등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독립변인으로 삼은 조부모의 돌봄시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었는데 조부모의 돌봄시간이 10분 더 길수록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의 자녀 돌봄시간은 1.1분 짧았다.

4.2.2 수면시간에 대한 분석

여기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의 ‘수면시간’을 종속변수로 삼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돌봄시간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모형 I]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을 보이는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근로시간이 길수록 수면시간이 짧았으며, 고졸 미만 또는 고졸의 교육수준을 가진 이들의 수면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임시·일용근로자들의 수면시간이 상용종사자에 비해 17분가량 적었으며,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할수록 수면시간은 짧았다.

배우자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배우자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본인(아내)의 수면시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수면시간은 짧았고, 일요일에 비해 평일은 1시간, 토요일은 34분가량 적게 자고 있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자 독립변수로 삼은 3세대 가구 여부 변수는 (-)의 계수값을 나타내었으나 그 크기도 미미한 수준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어 통제변수들은 동일하게 설정하고 3세대 가구 여부 대신 조부모의 돌봄시간(분)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모형 II]의 결과에서도 통제변수들에 대한 계수값의 방향이나 유의도 등이 유사하게 나타난 가운데, 독립변인으로 삼은 조부모의 돌봄시간 또한 (-)의 계수값을 나타내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아니어서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3세대 거주나 조부모의 자녀돌봄 정도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의 수면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표 4.4> ‘수면시간(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특성	변수명	[모형 I: 3세대 거주 여부]		[모형 II: 조부모의 미성년 자녀 돌봄시간]	
		추정치(β)	S.E.	추정치(β)	S.E.
통제 변수	연령	-2.081***	0.304	-2.086***	0.304
	근로시간(시간)	-7.827***	0.304	-7.816***	0.621
	소득 범주 (ref.=2~300만원)	0~100만원	-14.084*	5.628	-14.180*
		100~200만원	-7.243†	4.207	-7.307†
		300~500만원	-2.405	5.259	-2.400
		500만원 이상	-25.977**	8.956	-25.699**
	교육 수준 (ref.=대졸)	고졸 미만	51.253***	11.103	51.232***
		고졸	9.981*	4.791	9.952*
		전문 대졸	-2.362	4.227	-2.391
		대학원 졸	-19.902**	7.095	-19.849**
	종사상 지위 (ref.=상용 종사자)	임시·일용 근로	-16.861***	4.576	-16.823***
		고용원 有 자영업	-1.880	7.669	-1.884
		고용원 無 자영업	-3.932	5.507	-3.966
		무급 가족 종사자	5.752	8.172	5.748
	주관적 건강 상태	-9.542***	2.059	-9.573***	2.059
배우자 특성	근로시간(시간)	-2.443***	0.538	-2.440	0.537
	소득 범주 (ref.=3~400만원)	0~200만원	7.383	6.151	7.364
		200~300만원	1.069	4.199	0.994
		400~600만원	-1.468	4.154	-1.502
		600만원 이상	12.178*	5.929	12.090*
	교육 수준 (ref.=대졸)	고졸 미만	-29.650*	13.296	-29.524*
		고졸	7.385	4.653	7.405
		전문 대졸	10.184*	4.270	10.221*
		대학원 졸	10.901†	6.210	11.011†
가구 특성	미성년 자녀 수	-7.730**	2.454	-7.675**	2.453
	만 10세 미만 자녀 유무	5.551	3.918	5.641	3.922
	자가 보유 여부	0.597	3.453	0.617	3.449
	지역 (ref.=기타 지역)	서울	-4.431	5.377	-4.211
		광역시	0.739	3.373	0.742
	조사 일 (ref.=일요일)	평일	-59.830***	5.481	-59.786***
		토요일	-33.794***	4.935	-33.778***
독립 변수	세대 특성	3세대 가구 여부(3세대 가구=1)	-0.773	5.971	
		조부모의 돌봄시간(분)			-0.031 0.061
	상수항		705.548***	16.712	705.683*** 16.705
		F-value		40.10***	40.11***
		R ²		0.317	0.317
		Adj. R ²		0.309	0.309
		N		2,796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4.2.3 가정관리시간에 대한 분석

모든 가구가 가정관리시간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더 많은 가정관리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에게 요구되는 가정관리 시간은 때로 상당한 심리적·체력적 부담이나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표 4.5>에는 앞선 분석들에 이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의 ‘가정관리시간’을 종속변수로 삼아 동일한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모형 I]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가정관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근로시간이 길수록 가정관리에 들이는 시간은 적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대졸의 학력을 가진 이들에 비해 고졸, 전문대졸의 교육수준을 가진 이들은 가정관리에 각각 15.2분과 14.0분을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밖에 무급가족종사자일 경우 상용근로자인 이들에 비해 가정관리시간이 18.5분 짧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가정관리에 투입하는 시간이 적었다. 배우자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연령이 많을수록 본인(아내)이 가정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과 관련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정관리시간 또한 긴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만 10세 자녀가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정관리시간은 17분가량 짧았다. 그밖에 지역이나 조사일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 중 하나인 3세대 가구 여부 변수는 가정관리시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계수값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는 3세대 가구 맞벌이 여성은 2세대 가구 맞벌이 여성에 비해 일평균 가정관리시간이 13.3분가량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어 통제변수들은 동일하게 설정하고 3세대 가구 여부 대신 조부모의 돌봄시간(분)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모형 II]의 결과에서도 독립변인으로 삼은 조부모의 돌봄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 비추어보면 조부모의 돌봄시간이 10분 증가할수록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의 가정관리시간은 1.8분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5> ‘가정관리시간(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특성	변수명	[모형 I: 3세대 거주 여부]		[모형 II: 조부모의 미성년 자녀 돌봄시간]		
		추정치(β)	S.E.	추정치(β)	S.E.	
통제 변수	연령	1.407***	0.314	1.375***	0.314	
	근로시간(시간)	-18.399***	0.641	-18.338***	0.641	
	소득범주 (ref.=2~300만원)	0~100만원	21.787***	5.811	21.453***	5.810
		100~200만원	12.933**	4.345	12.690**	4.343
		300~500만원	-11.388*	5.430	-11.717*	5.421
		500만원 이상	-10.872	9.248	-9.552	9.260
	교육수준 (ref.=대졸)	고졸 미만	0.499	11.465	0.234	11.457
		고졸	15.223**	4.947	14.736**	4.939
		전문대졸	14.040**	4.364	13.806**	4.361
		대학원졸	1.508	7.327	1.521	7.320
	종사상 지위 (ref.=상용종사자)	임시·일용근로	0.229	4.725	0.446	4.722
		고용원有 자영업	11.492	7.919	11.243	7.913
		고용원無 자영업	6.208	5.687	5.805	5.681
		무급가족종사자	-18.503*	8.438	-18.670*	8.432
	주관적 건강상태	-4.374*	2.126	-4.593*	2.125	
	근로시간(시간)	2.232***	0.555	2.823***	0.555	
	소득 범주 (ref.=3~400만원)	0~200만원	3.651	6.352	3.671	6.347
		200~300만원	-7.436†	4.336	-8.083†	4.332
		400~600만원	-2.836	4.290	-2.985	4.287
		600만원 이상	-6.292	6.122	-6.696	6.121
	교육수준 (ref.=대졸)	고졸 미만	-21.372	13.729	-20.688	13.722
		고졸	-5.620	4.805	-5.695	4.800
		전문대졸	-9.297*	4.409	-9.386*	4.403
		대학원졸	6.113	6.413	6.417	6.410
가구 특성	미성년 자녀수	12.335***	2.534	12.417***	2.532	
	만 10세 미만 자녀 유무	-16.777***	4.046	-16.280***	4.047	
	자가보유 여부	0.113	3.565	-0.020	3.559	
	지역 (ref.=기타지역)	서울	-5.724	5.552	-5.253	5.550
		광역시	1.590	3.483	1.519	3.480
	조사일 (ref.=일요일)	평일	0.848	5.660	0.864	5.655
		토요일	-4.566	5.096	-4.479	5.093
독립 변수	세대 특성	3세대 가구 여부(3세대 가구=1)	-13.272*	6.165		
		조부모의 돌봄시간(분)			-0.183** 0.063	
상수항		156.329***	17.257	157.813***	17.239	
<i>F-value</i>		52.55***		52.74***		
<i>R</i> ²		0.378		0.379		
<i>Adj. R</i> ²		0.371		0.372		
N		2,796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4.3 3세대 거주가 맞벌이 여성의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

세대구성은 시간활용 양상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시간활용을 둘러싼 심리적 요인이나 시간부족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성이 높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의 자녀돌봄, 수면, 가정관리시간을 살펴본 데 이어 본 장에서는 시간부족감에 대해 분석해보자 한다. <표 4.6>은 4점척도로 측정한 시간부족감(점수가 높을수록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낌)을 종속변수로 삼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 I]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시간부족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는 낮았으며, 근로시간이 길수록 시간이 더욱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범주별로 완전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정도의 소득범주에 속하는 이들이 체감하고 있는 시간부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¹³⁾. 종사상지위에 따라서는 상용종사자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의 시간부족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시간부족감이 낮았다.

배우자의 근로시간이나 소득범주를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배우자의 학력과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대졸인 이들에 비해 고졸, 전문대졸 또는 대학원졸인 경우 본인(아내)이 체감하는 시간부족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맞벌이 여성의 체감하는 시간부족감의 정도는 높았으며, 다른 조건이 같다면 만 10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시간부족감이 더더욱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요일에 비해서 평일에 체감하는 시간부족감의 정도는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3세대 가구 여부 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 3세대 가구에 속하는 이들이 체감하고 있는 시간부족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타의 조건이 같다면 2세대 가구에 속한 맞벌이 여성들에 비해 0.15점 낮았다.

이어 통제변수들은 동일하게 설정하고 3세대 가구 여부 대신 조부모의 돌봄시간(분)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모형 II]의 결과에서도 조부모의 돌봄시간 변수는 (-)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결과값은 아니었다.

13) 이는 자녀돌봄을 위해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등 시간활용에 대한 조정이나 선택의 결과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서는 이를 선택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세한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표 4.5> ‘시간부족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특성	변수명	[모형 I: 3세대 거주 여부]		[모형 II: 조부모의 미성년 자녀 돌봄시간]			
		추정치(β)	S.E.	추정치(β)	S.E.		
통제 변수	본인 특성	연령	-0.009**	0.003	-0.009**	0.003	
		근로시간(시간)	0.028***	0.006	0.029***	0.006	
		소득 범주 (ref.=2~300만원)	0~100만원	-0.172**	0.053	-0.173**	0.053
			100~200만원	-0.077†	0.040	-0.078†	0.040
			300~500만원	0.040	0.050	0.035	0.050
			500만원 이상	0.103	0.085	0.109	0.085
		교육 수준 (ref.=대출)	고졸 미만	-0.170	0.105	-0.173†	0.105
			고졸	-0.067	0.045	-0.073	0.045
			전문 대졸	-0.115**	0.040	-0.117**	0.040
			대학 원졸	-0.125†	0.067	-0.127†	0.067
		종사상 지위 (ref.=상용 종사자)	임시·일용 근로	-0.065	0.043	-0.064	0.043
			고용원 有 자영업	0.029	0.073	0.026	0.073
			고용원 無 자영업	-0.070	0.052	-0.074	0.052
			무급 가족 종사자	0.226**	0.078	0.223***	0.078
	주관적 건강 상태		-0.118***	0.020	-0.120***	0.020	
	배우자 특성	근로시간(시간)		0.001	0.005	0.002	0.005
		소득 범주 (ref.=3~400만원)	0~200만원	-0.015	0.058	-0.013	0.058
			200~300만원	0.100*	0.040	0.094*	0.040
			400~600만원	0.010	0.039	0.009	0.039
			600만원 이상	-0.083	0.056	-0.084	0.056
		교육 수준 (ref.=대출)	고졸 미만	-0.059	0.126	-0.056	0.126
			고졸	0.102*	0.044	0.100*	0.044
			전문 대졸	0.093*	0.040	0.090*	0.040
			대학 원졸	0.197***	0.059	0.196***	0.059
	가구 특성	미성년 자녀 수		0.080***	0.023	0.079***	0.023
		만 10세 미만 자녀 유무		0.204***	0.037	0.206***	0.037
		자가 보유 여부		-0.053	0.033	-0.056†	0.033
		지역 (ref.=기타)	서울	0.117	0.051	0.113*	0.051
			광역시	0.051	0.032	0.050	0.032
		조사일 (ref.=일요일)	평일	-0.165**	0.052	-0.167**	0.052
			토요일	-0.066	0.047	-0.066	0.047
독립 변수	세대 특성	3세대 가구 여부(3세대 가구=1)		-0.151**	0.057		
		조부모의 돌봄시간(분)				-0.0011†	0.0006
상수항			3.694***	0.158	3.709***	0.159	
<i>F-value</i>			9.80***		9.67***		
<i>R</i> ²			0.102		0.101		
<i>Adj. R</i> ²			0.092		0.090		
N			2,796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앞선 분석결과들을 종합하면 3세대 거주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의 시간활용 양상에 일정부분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세대 가구(조부모-부모-미성년 자녀)에 속해 있는 맞벌이 여성의 경우, 2세대 가구(부모-미성년 자녀)에 속해 있는 맞벌이 여성에 비해 자녀돌봄과 가정관리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수면시간에 있어서는 세대구성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세대구성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돌봄분담에 따른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부모의 돌봄시간이 길수록 자녀돌봄시간 및 가정관리시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부모의 돌봄시간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도 수면시간은 통계적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시간활용의 양상 차이와 함께 시간에 대해 체감하고 있는 시간부족감에 대한 차이도 확인되었다. 3세대를 이루어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조부모의 돌봄시간이 길수록 시간부족감을 느낄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5. 결론 및 함의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 즉 ‘조부모-부모-미성년 자녀’로 이루어진 3세대 가구는 과거와 비교하면 그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가구형태 결정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측면, 건강상태 등 여러 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선택)이다. 따라서, 가구형태는 개인의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능한다.

본 연구는 가구구조에 따른 개인, 그 중, 유자녀 맞벌이 여성의 시간활용 양상과 그들이 느끼고 있는 시간부족감에 대해 분석했다. 유자녀 맞벌이 여성은 개인에게 주어진 여러 역할들로 시간활용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이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생활시간조사(2019년)」 자료를 이용해 ‘부모-미성년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와 ‘조부모-부모-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3세대 가구 맞벌이 여성(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수면시간, 가정관리 시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이 느끼고 있는 시간부족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 중 3세대가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였으며, 92.8%는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2세대 가구였다. 이들은 미성년 자녀 돌봄에 일평균 79.4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수면시간은 평균 488.0분(≈8.1시간)이었다. 가정관리에는 157.9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점척도로 설계한 시간부족감은 평균 3.13점 수준(③가끔부족하다고 느낌~④항상 부족하다고 느낌 사이에 위치)으로 집계되어 시간부족감을 느끼는 이들이 상당할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단순히 가구유형(세대특성)별 시간사용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자녀 돌봄시간과 가정관리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2세대 가구 맞벌이 여성(어머니)의 경우 미성년자녀 돌봄에 일평균 80.6분을 사용하는 반면 3세대 가구 맞벌이

여성은 63.9분을 자녀돌봄에 할애하고 있었다. 가정관리시간 또한 2세대 가구 맞벌이 여성이 비해 3세대 가구 맞벌이 여성의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평균 2세대 가구 맞벌이 여성의 경우 일평균 159.5분을, 3세대 가구 맞벌이 여성은 평균 136.8분을 투입하고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본인 및 배우자의 특성과 가구특성을 함께 통제한 상태에서도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지의 여부(=3세대 거주)’ 또는 ‘조부모의 돌봄시간’에 따라 맞벌이 여성의 시간사용 양상 차이가 확인되었다. 3세대 가구(조부모-부모-미성년 자녀)에 속해 있는 맞벌이 여성의 경우 2세대 가구(부모-미성년 자녀)에 속해 있는 맞벌이 여성에 비해 자녀돌봄과 가정관리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수면시간의 경우 가구구성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세대구성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돌봄분담(돌봄시간)에 따른 차이도 확인되었는데 조부모의 돌봄시간이 길수록 자녀돌봄시간과 가정관리시간이 짧았다. 시간부족감에 대한 분석에서도 3세대를 이루어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조부모의 돌봄시간이 길수록 느끼고 있는 시간부족감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다만, 조부모의 돌봄시간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도 수면시간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에게 있어 3세대 거주는 시간활용의 측면에서 일정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돌봄이나 가정관리는 한국사회에서 특히 취업모에게 부담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자녀돌봄이나 가정관리와 관련한 시간이 가구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이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의 체감하고 있는 시간부족감도 가구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분석되었는데 3세대가 함께 살고 있거나 조부모의 돌봄시간이 긴 가구의 경우 시간부족감의 정도가 낮았다.

분석결과, 가구형태가 조부모 세대와 자녀세대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첫째,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풀지 못한 숙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완화 방안 마련 시 세대 간 연계 정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부모의 (적정한) 돌봄이 가계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육아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가정보육수당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손자녀 돌봄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이윤진·권미경·김승진, 2015; 배호중·한창근·양은모, 2017¹⁴⁾). 물론 조부모 돌봄을 지원하면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고착된다는 우

14)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거주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3세대 가구(부부+자녀+손주)의 동거나 인근집거주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최정민, 2016). 또한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세액공제를 통해 세대간 돌봄을 공식부문으로 끌어들인 벨기에를 비롯하여 주당 20시간 이상 손자녀는 돌보는 근로연령 조부모에 대해 아동양육크레딧을 제공하는 영국(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 전지원, 2019) 등의 사례와 같이 세대간 돌봄을 공식화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한국에서도 일부 자치단체(광주광역시, 강

려도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조부모가 지나친 부담에 시달리지 않고 손주를 돌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전지원, 2019)일 수도 있다.

둘째, 조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시간 배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예측가능한 근로 일정 제공 등의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조부모의 경우, 수당제공과 같은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손)자녀 돌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등 조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맞벌이 여성의 경우, 일터에서의 갑작스러운 일정변경, 장시간 근로 등을 자녀돌봄에 큰 불안요인이라 스트레스가 된다. 또한, 근로시간은 돌봄이나 가정 관리 시간을 줄이고, 시간부족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시간부족감 완화 등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예측가능한 근로 일정을 제공하는 근로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끝으로, 가족내에서의 자원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돌봄에 대한 기대와 지원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돌봄 자체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다(안숙영, 2018; 오유라, 2021; 송다영, 2022). 무엇보다 돌봄은 여성에게만 당면한 문제가 아니다. 돌봄이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은 기혼 맞벌이 여성을 포함하여 여성들에게는 시간부족과 일과 가사 등을 포함한 돌봄노동의 이중부담을 필연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저출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있었으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 역설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상기한다면, 맞벌이 여성들의 시간사용/시간부족감이 의미하는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가구유형에 주목하여 ‘조부모-부모-미성년 자녀’로 이루어진 3세대 가구와 ‘부모-미성년 자녀’ 세대만으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 간의 비교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의 시간사용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하나의 역할을 가진 이들보다 일반적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여성들이 체감하는 시간부족감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기혼여성의 시간사용 양상이나 부부 내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 조부모와의 동거, 돌봄분담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맞벌이 여성의 시간활용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시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가구특성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후속연구를 위해 이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함께 살고 있는 조부모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인접한 곳에 위치하면서 직접적인 돌봄분담이 이루어지는 가구도 상당수 존재할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조부모의 돌봄시간 (또는 동거여부)만을 고려하였으며,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의 경우 조부모의 돌봄시간을 일괄적으로 0으로 처리한 후 분석했다는 상당한 한계를 갖는다. 이는 비록 비동거인의 시간 사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료의 한계에 따른

남구, 서초구 등)에서 손자녀 돌보미 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 중이기는 하나 전국 규모의 사업은 아니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나 연구의 과정은 부족한 실정이다.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조부모의 돌봄 지원이나 분담이 꼭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는 본 연구의 상당한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시간활용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소들을 풍부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정 활동에 대한 시간은 '24시간-필수활동에 필요한 시간'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통근에 소요된 시간은 본 연구에서 살피고자 한 활동들을 할 수 없을 가능성성이 큰 시간이므로 이러한 활동들도 함께 통제하는 것이 보다 세밀한 분석을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활동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장애와 같은 개인의 특성들도 돌봄을 요하는 시간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까지는 함께 통제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주행동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돌봄의 경우(특히나 자녀가 어느 정도 큰 경우라면) 다른 활동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돌봄이나 가정관리 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어떠한 활동을 주활동으로 삼을 것인지, 또는 해당 행동을 특정한 행동으로 간주할 것인지 등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활동으로 응답한 시간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넷째, 돌봄이나 가정관리를 시간적인 측면으로만 살렸다는 점도 큰 한계라 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살피고자 한 바가 유자녀 맞벌이 여성의 시간활용 양상이고 그 가운데 가정관리, 수면, 자녀돌봄 시간량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손)자녀돌봄이나 가정관리의 경우 시간투입뿐만 아니라 가전도구의 활용이나 전문 돌봄기관의 이용 등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과 함께 돌봄이나 가정관리의 질적 측면을 도외시한 채 시간량만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섯째, 조부모의 특성이나 자녀의 구성, 지역 여건 등 가구의 특성을 보다 충실히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 또한 연구결과의 일반화 등에 있어 상당한 아쉬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부모의 경우 연령이 높은 만큼 살아온 궤적이 다양할 수 있고 그 특성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나 그들의 돌봄시간만을 고려하였을 뿐 그들의 건강상태, 가용시간 등 돌봄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충실히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돌봄이 필요한 손자녀의 특성 또한 여러 요인들이 돌봄(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자명하지만 이를 보다 춤춤하게 통제하거나 이유를 해석해내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비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생활시간조사」가 개인 또는 가구의 특성과 관련해 세밀한 부분까지는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도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3세대 가구는 소수의 특별한 가구형태 정도로 여기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나 연구가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에서 그와 같이 세세한 부분까지 많은 것을 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연구자들이 판단한 까닭도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까지도 함께 담아낼 수 있다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등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감소한 돌봄/가사노동시간 이외에 증가한 다른 활동시간 등에 분석까지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보다 풍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시간활용이나 시간부족감의 주요 원인으로 이중노동이 지적되는 만큼, 특정 대상이 돌봄을 감당하거나 지원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라, 탈가족화와

사회화로 시선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돌봄과 시간 활용의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길 기대한다. 향후 다양한 가구원 및 세대의 특성을 담고 있어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개발·축적되고 이를 이용한 분석이 쌓여간다면 개별 가구의 보다 나은 시간활용이나 역할분담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를 둘러싼 사회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7월 31일 접수, 2023년 11월 15일 수정, 2023년 11월 15일 채택)

참고문헌

- 강성호, 류건식, 김동겸 (2018).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보험연구원, 서울.
- 김미영, 박미려 (2017).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시간빈곤 수준과 삶의 질: 개인유지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집단 간 비교,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1), 45-55.
- 김상대, 장유미 (2009). <가족 및 여성경제학>, 경상대학교 출판부, 진주.
- 김영란, 주재선, 김난주, 최진희 (2015). <생활시간조사를 통해본 가족시간 변화 추이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
- 김영란, 배호중, 선보영, 성경, 류연규 (2021). <코로나19 이후 돌봄 정책 연구>,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서울.
- 김외숙 (2015). 가족자원경영학에서의 시간사용연구와 시간빈곤,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김윤정, 문순영 (2009). 영유아 돌봄 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8(2), 221-259.
- 김은설, 유해미, 최은영, 최효미, 배윤진, 양미선, 김정민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세종.
- 김은설, 최윤경, 권미경, 최효미, 김나영, 김자연, 박은영 (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세종.
- 김일옥, 왕희정, 정구철, 최소영 (2011). 출산장려 정책과 근로시간이 기혼여성의 둘째아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4(3), 139-156.
- 김정석 (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 97-116.
- 김진욱 (2008). 일하는 어머니들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복지정책>, 35, 197-220.
- 김진욱, 고은주 (2014). 맞벌이 부부의 가정 내 무급노동시간 영향요인 국가비교: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사회복지정책>, 41(2), 185-212.
- 김진욱, 고은주 (2015). 시간압박, 누가 얼마나 경험하는가?: 한국 기혼부부의 수면, 개인관리, 여가시간 결핍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42(2), 135-161.
- 김현식, 김지연 (2012). 부모동거가 첫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2(3), 5-32.
- 노혜진 (2019). 시간빈곤과 이중빈곤의 실태와 영향요인-다양한 시간빈곤 개념 적용, <사회복지정책>, 46(4), 65-90.
- 박건 (2016). 기혼여성의 재량시간 활용과 시간관리 실태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
- 박세정 (2020). 소득 계층에 따른 시간 빈곤 결정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40(1), 206-237.
- 박은정 (2019). 1인가구와 다인가구 미혼자의 전일제임금금로자의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에 관한 연구, <가정과 삶의 질 연구>, 37(3), 1-18.

- 배정연, 홍석자 (2010). 기혼직장여성의 출산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1세기 사회복지연구>, 7(1), 131-150.
- 배호중, 김정옥 (2020). 신혼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자리 특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106(3), 93-126.
- 배호중, 한창근, 양은모 (2017). 친정과의 거리와 자녀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37(2), 5-40.
- 서지원 (2015). 맞벌이가정의 시간사용 실태와 시간 빈곤.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87-103.
- 성지미, 차은영 (2001). 세대간 동거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노동경제논집>, 24(1), 97-124.
- 손문금 (2003). 맞벌이 주부의 이중부담과 여가의 성격, <통계연구>, 8(2), 23-58.
- 송다영 (2022). 돌봄정책의 새판짜기는 어떻게 가능한가?: 돌봄윤리 관점에서의 돌봄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비판사회정책>, 77, 197-226.
- 안숙영 (2018). 돌봄노동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여성학>, 34(2), 1-32.
- 오유라 (2021). 부부의 돌봄노동 젠더불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4(2), 121-138.
- 오헤은 (2017). 시간과 소득의 동시 빈곤에 관한 연구-남녀 가구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4(1), 161-185.
- 이경희, 김근주(2018). <시간 빈곤(Time-poor)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
- 이윤진, 권미경, 김승진 (2015).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서울.
- 이재림 (2013).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 세대 간 지원 제공 및 수혜의 의미, <가정과 삶의 질 연구>, 31(2), 1-24.
- 이정원 (2007).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합리적-가치적 선택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하나, 최영 (2015). 비공식적 돌봄 자원이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 조부모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2), 262-288.
- 전은화 (2013). <직장기혼여성의 출산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지원 (2019). 조부모의 '손주 돌봄', 사회적 가치 생각 해야 할 때, 주간동아(제1220호, 2019.12.27.).
- 전현배, 이인재 (2009). 가족구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9(1), 1-25.
- 정은희, 최유석 (2013).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보건 사회연구>, 33(1), 5-34.
- 정형안, 이윤석 (2020). 가사, 돌봄, 유급노동 시간이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수면시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43(2), 27-54.
- 정혜은, 진미정 (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1), 147-164.

- 조보배 (2022).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112(1), 121-146.
- 조주은 (2008). 압축적 시간성을 통한 ‘바쁨’: 서울지역 중간계급 유배우 취업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4(3), 211-242.
- 주은선, 김사현, 김민성 (2014). 한국 부모의 미취학아동 돌봄시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0(2), 367-400.
- 주익현 (2017). 자녀돌봄노동이 아내의 수면부족에 미치는 효과, <한국인구학>, 40(4), 79-102.
- 주익현, 주이화 (2021). 유급노동·가사·돌봄·여가 시간사용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4(1), 109-133.
- 차승은 (2010). 남녀의 시간압박인식 차이와 관련요인 탐색, <한국인구학>, 33(1), 27-49.
- 최은희, 이윤석 (2021). 손자녀와 동거하는 중고령자의 손자녀 돌봄시간과 삶의 질, <보건과 사회과학>, 56(1), 87-110.
- 최정민 (2016). 인근접거주 촉진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4(2), 33-52.
- 통계청 (2019). <2019년 생활시간조사 지침서>, 통계청: 대전.
- 통계청 (2022).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2022.11.22. 보도자료)’.
- 통계청 (2023).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7&conn_path=I3에서 2023.7.30. 인출.
- 하석철, 홍경준 (2014).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성인 자녀와의 호혜적 관계 기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돌봄 지속 유형에 따른 경제적 지원 기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1(3), 51-77.
- 허수연, 김한성 (2019).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4), 5-29.
- 허수연 (2008).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3), 177-210.
- Blau, F. D., Ferber, M. A., & Winkler, A. E. (2002). *The Economics of women, men and work*. Upper Saddle.
- Compton, J., & Pollak, R. A. (2014). Family proximity, childcare, and women's labor force attachment. *Journal of Urban Economics*, 79, 72-90.
- Compton, J. (2015). Family proximity and the labor force status of women in Canada.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3, 323-358.
- Evertsson, M., & Nermo, M. (2007). Changing resources and the division of housework: A longitudinal study of Swedish coupl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4), 455-470.
- Fetterolf, J. C., & Rudman, L. A. (2014). Gender inequality in the home: The role

- of relative income, support for traditional gender roles, and perceived entitlement. *Gender Issues*, 31, 219–237.
- Fuqua, R. W., & Labensohn, D. (1986). Parents as consumers of child care. *Family Relations*, 295–303.
- Garcia-Moran, E., & Kuehn, Z. (2017). With strings attached: Grandparent-provided child care and female labor market outcomes. *Review of Economic Dynamics*, 23, 80–98.
- Gordon, R. A., & Högnäs, R. S. (2006). The best laid plans: Expectations, preferences, and stability of child care arrange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2), 373–393.
- Johansen, A. S., Leibowitz, A., & Waite, L. J. (1996). The importance of child-care characteristics to choice of ca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59–772.
- Kanji, S. (2018). Grandparent care: A key factor in mothers'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 the UK. *Journal of Social Policy*, 47(3), 523–542.
- Ko, P. C., & Hank, K. (2014). Grandparents caring for grandchildren in China and Korea: Findings from CHARLS and KLoSA.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9(4), 646–651.
- OECD(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098732-en>.
- Sasaki, M. (2002). The causal effect of family structure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among Japanese married women. *Journal of human Resources*, 37(2), 429–440.
- Sear, R., & Dickins, T. E. (2010). The generation game is the cooperation game: The role of grandparents in the timing of reproductio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3(1), 34–35.
- Tanskanen, A. O., & Rotkirch, A. (2014). The impact of grandparental investment on mothers' fertility intentions in four European countries. *Demographic research*, 31, 1–26.
- Yu, H., Cao, J., & Kang, S. (2023). Fertility cost, grandparental childcare, and female employment. *Empirical Economics*, 64(3), 1067–1104.

The Effects of Living Together with Grandparent(s) on Time Use in Dual-income Mothers

Eunmo Yang¹⁵⁾, Sung Kyung¹⁶⁾, Hojoong Bae¹⁷⁾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se the data from the 2019 Korean Time Use Survey to compare childcare, sleep, and home management time and subjective time famine in dual-income women between two-generation households composed of a married couple and child(ren) under age and three-generation households composed of grandparent(s), parents, and child(ren) under age.

Dual-income women's time use differed either by living together with grandparent(s) (three-generation family status) or by the amount of childcare time provided by co-living grandparent(s): dual-income women who were in the three-generation households composed of grandparent(s), parents, and child(ren) or who were positively assisted by co-living grandparent(s) with childcare spent relatively less time in childcare and home management than those in the two-generation households. Dual-income women living with grandparent(s) showed a relatively lower degree of subjective time famine.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suggestions were provided to make social policies on such issues as childcare, low birthrate and aging.

Key words : Parents cohabitation, Paternal childcare time, Time use survey, Three generational family

15) (First author) Research Fellow, Gangwon Institute. (E-mail: emyang@gi.re.kr)

16) Researcher,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mail: skyung@kwdimail.re.kr)

17)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mail: baseball@kwdimail.re.kr)